

대학평가 결과 활용의 개선방향

염 영 일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



1. 서 론

1994년도에 시작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지난해 말로 41개교가 평가를 마쳤다. '94년 평가를 시작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대학의 수가 151개 대학으로 2000년까지 모든 대학이 이 기간에 자율적으로 평가시기를 선택하여 인정을 받기로 되어 있고, 그 후 7년을 주기로 대학종합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다. 대학평가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간여없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법 제18조에 의해 수행되는 법정사업으로서 1982년부터 매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왔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지적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그러다 10주년이 되는 1992년 대교협은 대학평가를 대학의 사회적 공신력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대학평가제로 발전시키고자 병설기구인 대학평가인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평가인정제를 도입하여 평가 체제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지난 '92년도부터는 학과평가인정제를, '94년도부터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병행 실시해오고 있다.

대학종합평가가 실시될 당시 대학종합평가인정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대두되었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평가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한 제도로서 피평가대학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자구노력을 하는 분

위기를 조성하고, 학교 전 구성원이 합심하여 단결된 모습으로 대학 전반에 걸쳐 과거를 뒤돌아보며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교수임용에 전에 없는 의욕을 보이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실제로 평가 첫해인 199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약 2,850명의 교수 총원이 있었고, 1995년도에는 1,600명, 1996년도에는 1,400명의 교수총원의 효과가 있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선발대학과 후발대학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발전과 특성화라는 다른 측면을 희생한다고 보는 이도 있다. 평가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기보다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문제를 덮어버리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인정이라는 목표에만 모든 가치를 집중시키는 현상이 벌어져 평가치 달성만을 위한 과도한 노력과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에 의한 의견으로는 그동안의 대학평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본다.

2. 평가기준 및 결과 : 1994~'96년을 중심으로

대학종합평가는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분하여 대학의 모든 부문에 걸쳐 실시된다. 학부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의 6개 평가 영역으로 크게 구분되며, 모두 100개 평가 항목에 500점의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보면 교육 영역에는 교육목적, 교육과정, 수업, 학생의 4개 평가부문에 22개

평가항목, 120점의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다. 연구 영역에서는 연구실적, 연구여건, 연구지원체제의 3개 평가부문에 12개 평가항목, 70점의 가중치가 주어지고 있다. 사회봉사 영역에서는 사회봉사와 대외협동의 2개 평가 부문에 8개 평가항목과 30점의 가중치가, 교수 영역에서는 교수구성, 수업부담 및 복지, 교수인사, 교수개발의 4개 평가 부문에 15개 평가항목, 80점의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다. 시설·설비 영역에서는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실험·실습설비, 후생복지시설의 4개 평가 부문에 21개 평가항목과 100점의 가중치가 주어지고, 재정·경영 영역에서는 재정확보, 예산편성 및 운영, 기획 및 평가, 행정 및 인사, 대학의 의사결정 등 5개 평가 부문에 22개의 평가항목과 100점의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다. 이상 6개 영역 100개 항목은 35%의 정량적 항목과 65%의 정성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원의 경우 교육과정, 수업 및 논문지도,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의 5개 부문에 20개의 평가항목과 100점의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다.

1996년도 평가척도에서는 연구 영역의 자중치가 전년도의 70점에서 65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사회봉사 영역 가중치의 경우는 전년도의 30점에서 35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특기할 만하다.

1) 1994년도 종합평가 선정 기준점수 및 결과
대학종합평가가 처음 실시되던 1994년도의 선정 기준점수는 인정 기준점수가 일단 결정되면 7년간의 제1차 평가주기 동안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모든 평가항목이 중간 정도의

등급을 받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인정점수를 결정하는 두 가지 방안이 심의를 거쳐 상정되었다.

제1안은 모든 평가항목이 중간 정도의 등급을 받는 것을 가정하여 인정 기준점수를 결정함으로써 평균적으로 평가항목이 중간 등급 이상을 받아야 평가인정이 되는 안이다. 이 안의 근거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우수대학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운영하는 데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음을 고려한 바, 평균 정도의 수준을 갖춘 국내 대학은 대부분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향후 다양한 대학에 대한 종합평가인정제 시행시 개별 대학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국내 대학의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에는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수 있으나, 비교적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동기유발의 효과가 적을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근거기준은 5점 척도의 평가항목에서는 A, B, C, D, E의 5등급 중에서 C를, 3점 척도의 평가항목에서는 A, B, C의 3등급 중에서 B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참고로 정량적인 5점 척도에서는 A=1.0, B=0.8, C=0.6, D=0.4, E=0.2를 적용하였고, 3점 척도에서는 A=1.0, B=0.7, C=0.4를 적용하였다.

제2안은 5점 척도의 정량적 평가항목에서는 5등급(A~E) 중 중간보다는 높은 B를 받고, 3점 척도의 평가항목(대부분 정성적 항목)에서는 3등급(A~C) 중 B를 받는 것을 가정하여 인정 기준점수를 결정하는 안이다. 이 안의 장점으로는 본 평가가 대학 발전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여 대학 발전의 핵심 요소인 정량

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소한 중간보다는 높은 등급(B)을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높은 동기 유발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국내 대학의 절반 가량이 전국 평균 이하 대학이라고 가정할 때 이들 대학이 아예 대학 발전 노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며,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우수대학의 선정이 아닌 '평가인정'임을 고려할 때 기준이 높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상기 두 안에 따른 학부 및 대학원의 종합평가인정 기준점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1995년 2월에 개최된 제1차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서는 <표 1>의 1안을 1994~2000년까지의 제1주기 종합평가인정제의 인정 기준점수로 확정하였다.

<표 1> '94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제 기준점수 및 근거

구분	만점	인정기준점수		근거기준	
				정량척도 (5점척)	정성척도 (3점척)
학부	500점	1안	328.3점	C	B
		2안	371.7점	B	B
대학원	100점	1안	66.5점	C	B
		2안	73.5점	B	B

1994년도 7개 피평가대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학부의 경우 총 500점 만점에 평균 443.52점으로 최고 474.25점에서 최저 399.11점까지, 대학원의 경우 총 100점 만점에 평균 89.05점으로 최저 84.4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평가기준상으로 볼 때 모든 피평가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 결과 7개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 모두 종합평가 인정기준 점수를 훨씬 상회함으로써 평가인정이 되었다. 상기 7개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가나다 순) 등 6개

국립대와 사립대로서는 포항공대가 학부와 대학원 공히 종합평가인정을 받았다.

2) 1995년도 종합평가 선정 기준점수 및 결과
1995년도 대학종합평가 인정기준은 1994년에 이어 대학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기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대학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인정 기준점수는 모든 평가항목의 중간 정도 등급을 받는 것을 근거로 설정하였다(〈표 2〉 참조).

표 2) '95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제 기준점수 및 근거

구 분	만 점	인정기준점수	근거기준	
			정량척도 (5점척)	정성척도 (3점척)
학 부	500점	328.3점	C	B
대학원	100점	66.5점	C	B

1995년도 대학종합평가를 받은 대학은 국립 4개 대학과 사립 19개 대학이며, 사립대 중에 5개 대학의 제2캠퍼스가 포함되어 있다. 23개 피평가대학의 학부 종합평가 결과는 총 500점 만점 중 평균 440.58점, 최고점이 471.58점, 최저점이 394.97점이다. 14개 피평가 대학원의 종합평가 결과 총 100점 만점 중 평균이 90.30점이고 최저점이 75.45점이다.

1995년도 대학종합평가를 통하여 인정된 학부 인정대학은 강원대, 건국대(서울), 경상대, 경희대(서울), 고려대(서울), 고려대(서창), 서강대, 성균관대(서울), 연세대(서울), 연세대(원주),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서울), 중앙대(안성),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림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안산), 홍익대(서울), 홍익대(조치원) 등으로 모두 23개 대학이다. 한편, 대학원 인정대학은 경상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양대, 홍익대 등 모두 14개 대학이다.

3) 1996년도 종합평가 선정 기준점수 및 결과
평가기준은 전년도와 같이 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결과는 학부의 경우 500점, 대학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것은 같으나, 1996년도에는 평가결과와 신뢰도와 대학간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량적 평가지표와 정성적 평가지표 모두에 5점척을 적용하였다(〈표 3〉 참조).

표 3) '96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제 기준점수

구 분	만 점	인정기준점수
학 부	500점	350.0점
대 학 원	100점	70.0점

1996년도에 대학종합평가를 받은 대학은 국립 2개 대학과 사립 9개 대학이다. 피평가대학의 종합평가 결과, 학부의 경우 총 500점 만점 중에서 평균 445.93점, 최고점이 484.20점, 최저점이 416.09점으로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의 경우 9개 피평가 대학원의 종합평가 결과 총 100점 만점 중 평균 88.86점이고, 최저점이 76.40점으로서 역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도의 대학종합평가를 통해 인정된 대학은 학부가 국민대, 금오공대, 동국대, 명지대, 숭실대, 아주대, 원광대, 인체대, 제주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등 모두 11개 대학이며, 대학원 인정대학은 국민대, 금오공대, 동국대, 숭실대, 아주대, 원광대, 제주대, 한국항공대, 한남대 등 모두 9개 대학이다.

여기서 3년간의 종합평가 결과를 비교 요

〈표 4〉 대학종합평가인정제 결과('94~'96)

연 도	학부(500점 만점)			대학원(100점 만점)		
	평균 점	최고 점	최저 점	평균 점	최고 점	최저 점
1994	443.52	474.25	399.11	89.05	-	84.40
1995	440.58(-2.94)	471.58(-3.00)	394.97(-5.86)	90.30(+1.25)	-	75.45(-5.05)
1996	445.93(+2.41)	484.20(+9.95)	416.09(+6.98)	88.86(-0.19)	98.5	76.40(-4.00)

* 접수 뒤 괄호 안의 숫자는 '94년도 대비임.

약하여 보면 〈표 4〉와 같다.

3. 대학종합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

지난 3년 동안 대학종합평가는 피평가대학 모두 '평가인정'으로 판정이 나왔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평가에서 나타난 공통된 문제점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열악한 재정이다. 가령 첫째는 주요 국립대학이 대상으로서, 국립대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300만 원 내외로 국제 평균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부생 실험실습비도 교육부 기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5년도 평가결과 역시 학생 1인당 연평균 교육비가 3,992,900원이고 평가 대상 대학 중 절반이 400만 원 이하로 나타났다. '96년도 평가에서는 재학생 1인당 교육비가 4,489,000원으로 이는 일본 도쿄대의 1/8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1/11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 재정 운영비가 학교에 따라서는 80% 이상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생들의 부담도 미국 달러로 4,000~6,000 달러의 등록

금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외국과 비교해도 국민소득 비례로 본다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시간강사의 의존도가 높다. 1995년도의 시간강사 의존도는 23개 대학 중 18개 대학의 의존율이 2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96년도의 경우 11개 대학의 평균 시간강사 의존율은 29.08%로 많게는 전체 교수의 41.20%까지 차지하는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도 재정에서 기인한다고 보나 교육의 질적 측면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수정해야 할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셋째, 교수들의 연구 업적이다. 1996년 교수 1인당 연간 국내 논문발표가 인문·사회계 1.81편, 자연계 2.18편, 예·체능계 1.52편이며 국외 논문은 인문·사회 0.13편, 자연계 0.31편, 예·체능계 0.07편 그리고 저서발간이 0.14권으로 저조한 편이다. 1994년도 평가에서 실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은 포항공대의 경우, 교수 1인당 국내 학술 논문발표가 4.3편, 국외 학술 논문발표가 2.1편으로 이공대학임을 감안하면 국제 수준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도서관 시설 및 장서의 부족이다. 장서 보유는 직·간접적으로 교수 및 학생 연구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도서 보유는 26만 권(1992년 통계)으로 서울대의 예만 보더라도 보유 장서

가 1994년 평가에서 나타난 바에는 164만 권인데, 내용 면에서도 숫자에 비해 도서 활용도가 떨어지며 순수과학 도서는 167,000권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1,100만 권, 일본 교토 대학의 310만 권에 비교하면 낮뜨거운 예다. 서울대 학생 1인당 도서관서수는 63.9권인 데 반해 일본 도쿄 대학의 경우는 593권이다. 1995년도 23개 대학 학생 1인당 장서수는 49.46권이며, 1996년도 9개 대학 평균은 50.05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4. 평가 결과 활용 및 개선방향

1) 정 부

대학종합평가인정제 평가사업을 시작한 대교협은 처음부터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해서는 정부가 대학을 지원할 때, 인정대학에 대해서는 '보상적 지원', 그렇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조성적 지원'을 실시하도록 주장해왔다. 필자도 이 주장에 동감하는 바,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가시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앞서서도 대학 재정의 취약성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국가 중 28위로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공공지출 비율은 GDP의 3.7%('93년 기준)로 그리스(3.4%), 터키(3.3%)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여기에 더 더욱 고등교육 투자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94년도 평가에서 서울대의 총 예산은 1,693억 원으로 일본 도쿄대의 거의 1/8이다. 신생 포항공대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수대학으로 인정받기에는 여러 다른 조건들도 있겠지만, 1인당 교육

비가 1,890만 원으로 서울대 423만 원의 4.4배나 된다는 사실이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지난 '94년부터 시작한 대학종합평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역사상 피평가대학이나 평가팀이 모든 영역에 걸쳐 매우 철저히 평가를 준비하여 실시되었다고 본다. 여기서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는 우리나라 어느 대학도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중동 여러 나라에 맞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도 세계 제1위인 GNP 대비 9%의 교육비 투자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2~13위를 다투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부 당국의 각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자율권 부여의 척도로서 대학평가인정제의 결과를 잘 활용할 것이라는 정책 방향을 공표한 바 있다. 정부의 사립대학 지원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는 순차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는 대학부터 자율성을 부여하여 결국에는 모든 대학의 운영이 교육부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불인정 판정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여태껏 종합평가를 실시한 대학들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 등이 비교적 양호한 대학들이다.

만일 앞으로 어느 대학에 불인정 판정이 났을 때 야기되는 소요는 대학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도 대학평가 결과로 인해 학생들의 소요가 일어나고 집기가 불탔던 경험도 갖고 있다.

2) 대 학

피평가대학은 아마도 개교 이래 평가를 준비할 때만큼 철저히 자기 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잘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본다. 대학은 평가 작업을 통해 자기 대학의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인정·불인정의 결과를 떠나 평가를 기회 삼아 진정한 대학의 개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눈을 밖으로 돌려 우리의 위치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 또한 평가를 통해 우리가 의미하는 '평가인정'이 무엇에 기준을 두었는지도 한 번쯤은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어느 신문 보도에서도 한국은 인구 대비 대학생수가 인구 10만 명당 3,418명으로 세계 1위란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은 해방 이후 대학수나 고등교육 인구가 양적으로는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평가도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구책임은 부인할 수 없다. 대학은 모름지기 평가인정에 안주하지 말고 각자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평가인정을 받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우선하는 진정한 대학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5. 결 어

세계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

다. 냉전의 와해는 국경없는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교육도 개방이란 물결에 휩쓸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위상을 알리는 잣대가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과거 험벗음과 경제 발전의 뒀안길에서 우리 민족 특유의 교육에 대한 열의에 힘입어 양적으로만 팽창하던 대학을 수수방관해 왔으나, 대학의 경쟁력 없이는 나라의 경쟁력도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대학의 질을 우선시하는 생각을 갖게끔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 일환으로 대학종합평가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평가의 기준은 우물안 개구리식의 기준이며, 세계적인 기준이 되기에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본다. 그러나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아직 3년을 갓 지난 시작에 불과하므로, 제2주기가 시작되는 21세기에는 진정 우리의 평가 기준이 세계가 본받을 수준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염영일/미국 유타 주립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가톨릭대학 교수를 지내고 현재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교무처장 및 부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94년부터 '96년까지 대교협 대학평가 위원 및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국내·외 유수의 학술지 및 학회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특허 3건이 있다.